

### 3월 25일 <수행일기>



정명자

중앙승가대 보육교사교육원 교수

남해의 바다위로 새벽이 열릴 때 나의 기도는 밤새 무엇을 소망했는지 모른 채 3,000배를 마치고 나는 낮은 사람으로 푸르게 열리는 새벽을 맞았다.

갈매를 실감한다. 무엇인지 알 수 없지만 나를 풀리지 않는 숙제를 안고 먼길 돌아왔던 20년 그것이 바로 '무지(無知)'였음을 어느 날 알게 되었다.

그리고 있었다.

3년전 직장도 공부도 잠시 쉬어갈 요량으로 마음먹고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하면서 일 년간을 보내기로 마음먹었다.

나는 인터넷 사이트를 둘러보면서 처음으로 '위빠사나'라는 말을 알게 되었다. 그것은 지금까지 내가 보고 들었던 어떤 것과도 다른 살아있는 말씀들이었기에 경이와 흥분, 기쁨과 호기심이 일었고 한편으로는 혼란스럽기도 했다.

어제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알고 있었던 것들이 무너져 내렸고, 사이트에 올린 글들을 몇 번씩 다시 읽은 후 답글을 썼다. 감사하게 잘 읽었다고.

어쩌면 부처님께서 걸으셨던 옛길로 안내하는 그 길이 거기에 있을 것 같았다.

통화를 하고 그 후로도 한 달쯤 후에 스님을 뵈 수 있었는데 나의 안과 밖을 지금의 모습으

### '위빠사나' 접한후 내 삶의 스승만나 책, CD, 비디오테잎 등으로 공부 시작

시다르타가 강가를 걷고 있을 때 그곳에서 목욕을 하는 사람들이 하는 소리를 들었다.

"이 강물에 몸을 씻으면 하늘에 갈 수 있다."

시다르타는 그들의 무지함에 분노한다.

"그러면 물고기와 거북이 가 잠면서 하늘에 가게 될 거요."

내 모습이 거기에 있었다.

불교를 처음 접하게 된 것은 스무 살 때, 부처님 비러 무작정 찾아갔던 조계사. 마침 조계사청년회 법회가 있었고 안내를 받아 조계사 청년회 회원이 되었다. 화·토요일에 법회가 있었는데 나는 내 삶의 이벤트인양 기쁘게 법회에 참석했다.

그 때부터 20년간을 법회 가고, 법문 듣고, 기도하고, 염불하고, 절하고, 천도제 지장제, 금강경독송 부처님의 품 안에서 감사하게 보낸 나날들이었다. 그러나 마음 깊은 곳에서는 무언가 알 수 없는 허전함이 일며, 늘 나는 또 다른 부처님을

로 바꾸어 주신 분이 연방죽선원의 법주 스님이시다. 사람 몸 받기 어렵고, 부처님 법 만나기 어렵고, 바른 법 만나기는 더욱 어려운 것을 실감한다.

처음 본 사람을 오래 보았던 사람처럼 낯설지 않게 대해 주셨고, 그렇게 나의 구법(求法)은 시작되었다. 나는 하얀 법지였고 어쩌면 형태도 없는 그림들도 가득 메워져 지우느라 더 많은 애를 쓰신 지도 모른다.

스님께서는 "자신이 무지한 상태에서 옳다고 받아들이는 것을 진리라 할 수 있는가?" 라고 하면서 살아계신 부처님 모습을 그려가기 시작했다.

책을 추천해주시고, 오며가며 차에서 들을 수 있는 오디오 테이프와 CD, 비디오테잎 등 내가 소화 할 수 있겠다 싶은 자료는 모두 챙겨주시며 부처님과 담판을 바로 알기를 바라셨던 스님. 참으로 중생구제를 실천하고 계셨다. (계속)

## “더럽히지 않는게 진정한 수행”

### 선수련회 28번째 여는 원명선원 대호스님

76년부터 28년간 매년 여름 및 겨울 '삼매체험 선수련회'를 열고 있는 제주 원명선원 회주 대호스님(60). 수련회라는 이름조차 없던 시기부터 재가 불자를 대상으로 수련회를 직접 지도해 온 스님은 4박5일간의 짧은 수련회이지만, 참가자들의 삶을 바꿔놓을 수 있는 의미있는 수련회를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 때문에 대호스님은 일반적인 교육 보다는 문답식 법문으로 모든 현상에 대한 이해와 발심을 촉발시키는 수련회를 운영하고 있다. 즉 수련생이 문답을 통해 스스로 기복적인 맹목적 삶에서 탈피토록 해 '직관(直觀) 수행'의 길로 들어가게 하는 장점이 있다. 여기서 직관수행이란 업장과 지혜의 유무에 상관없이 곧바로 마음에서 보고 듣고 활동하며, 밝고 맑은 자리를 수용하여 당처를 벗어나지 않는 수행이며 삶이다.

원명선원 수련회는 새벽 3시30분 기상에서부터 9시 취침까지 도량식, 예불, 독송, 행선, 좌선, 요가, 염송 등으로 꽉 짜여져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문답식 법문과 지도점점이다. 청법(聽法): 법문 듣기와 문답(問答)을 통한 교육이 조사선 수행전통에서는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즉 스승의 설법과 직지인심(直指人心): 마음을 알고자 하는 학인에게 그 마음을 바로 가리켜 주는 스승의 행위, 이에 대한 확인의 법문 듣기와 질문 및 선지식의 대답에 대한 참가자의 조사선의 기본 참가방법이다.

물론 이 때의 청법과 문답은 '수행을 통해 깨달음에 이를 수 있다'는 수인증과(修因證果)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대호 스님은 '청법과 문답은 어디까지나 확인 스스로

가 회광반조(迴光返照)하여 자신의 본래면목을 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행위일 뿐 깨달기 위한 인위적인 노력은 아니다'고 말한다. 오히려 조사선의 수행법이 좌선 관법 등 특별한 능력의 습득이 아니라 가장 보편적인 교육법인 문답법이라는 데, 보편성이 있다는 설명이다.

물론 대호스님의 이러한 지도방법은 하루 아침에 얻어진 게 아니다. 무수한 어린이, 청소년 및 성인 수련회를 통해 경험을 축적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연간 420여명, 28년간 1만2천여명의 수련생을 교육시킨 결과, 수련생 가운데 세 명이나 출가자를 배출하는 등 좋은 결과도 얻고 있다. 수련후 평상심으로 일하며 생활하는 수련생도

### 문답식 법문·지도점점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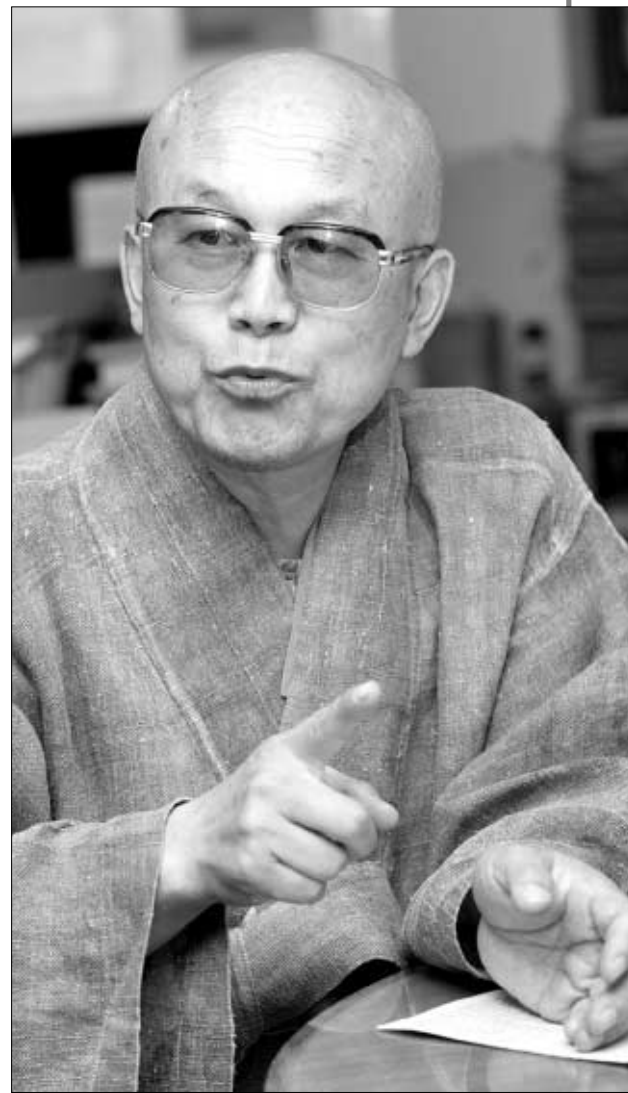
### 죽산에 대규모 수련원 설립준비

늘어나 '생활 참선인들의 모임'도 생겼다.

몇 년전 경기도 안성군 죽산면에 일약 2만5천평을 기증받은 대호 스님은 현재 수련원 설립을 위한 터파기 공사에 한창이다.

고불총림 백양사 방장 서용 스님의 제자인 대호스님은 "수행이란 인위적인 답습이 아니라 마음을 더럽히지 않는 것일 뿐"이라며 "오로지 진취적이고도 간접한 발심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삼매체험 선수련회는 7월 23-27일, 7월 31일-8월 4일, 8월 13-17일 세 차례 열린다. (064)755-3322

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제주 원명선원 회주 대호스님.

## 지금 수련회동문회는 업그레이드 중



◇14~15일 화계사에서 철야참선중인 '송사모' 회원들.

14~15일 서울 수유동 화계사에서 열린 '송사모(송광사를 사랑하는 모임)' 정기수련법회 현장. 토요일 저녁 전국에서 모인 회원 60명은 피곤한 표정이 역력했지만, 108배를 하고 가부좌를 틀면서 점차 편안한 얼굴로 변했다. 이날 저녁 9시부터 회원들은 장장 7시간에 달하는 철야참선을 무사히 회향했다. 이번 철야정진을 이끈 송사모 회장 이계복(32, 법명 장우씨)

는 "대부분 사회인들이라 바쁜 시간을 쪼개 1박2일간 산사에서 함께 정진하며 평생 도반이 되어 가는 인연에 만족한다"며 "초심자들이 정기수련법회에 참석하면서 어느덧 구도자가 되어 가는 자신을 발견하는 모습에서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2001년 9월 결성돼 현재 500여명의 회원이 가입한 '송사모'를 비롯 해인사, 통도사, 수덕사, 월정사, 불회사, 미항사, 쌍계

사 등의 수련회동문회들이 초보 신행도입의 성격에서 탈바꿈해 전문 수행단체로 정착되고 있다.

지난 96년 발족된 수련생 모임의 시초인 해인사수련생동문회는 500여 회원이 매달 둘째 토요일 해인사 보경당에서 1박2일간의 수련법회를 열고 있다. 지난 14일 78회 정기법회를 연 이 모임은 수시로 3천배를 할 정도로 옹양정진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창립된 통도사수련회총동문회는 매달 월야 참선법회를 갖는다. 이와 별도로 활동하는 통사모(통도사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는 7월13일부터 8월9일까지 6차에 걸쳐 열리는 통도사수련회에 자원봉사자들 보낼 계획이다.

2001년 11월 결성된 나주 불회사 '수불회(수행하는 불자들의 모임)'는 매달 셋째 주 토요일 수련법회를 열고, 소식지까지 발간하고 있다. 월정사 '선우회'는 2001년 9월 첫 모임을 시작으로 출수 달 둘째 토요일 정기법회를 갖는다. '미사모(미항사를 사랑하는 사람들)'는 매달 첫째 토요일 월야 참선법회를 열고 있다. '수사모(수덕사를 사랑하는 모임)'도 매달 정기법회를 열고 좌선, 108참회정진, 참선법문 등의 수행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이밖에도 사찰 수련회를 경험한 불자들이 자발적으로 인터넷 카페나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자신들의 수행을 점검하거나 사찰 의호신장의 역할을 하는 사이버 동호회도 늘고 있다. 이들 동호회는 '회원의 향기', 실상사수련동문회를 비롯 백련암, 부석사, 수덕사, 백양사, 죽서사, 마곡사, 대흥사, 선운사, 정토수련회, 내소사, 구룡사, 대원사 수련동문회 등 점점 늘어나는 추세다.

매년 수련회를 거쳐가는 인원은 2만여명. 자생적인 수련회 동문회들이 늘어나고 있어 재가자 수행 풍토 조성에 밑거름이 되고 있다는 평가다.

김재경 기자

### 신행모임에서 수행단체로

- 평생 도반되어
- 철야정진도 예상
- 홈피 개설 등
- 외호 신장역할 수행

## 삼매체험 선 수련회 안내

— 참선이 꼭 필요로 하는 사람을 위한 —

문답식 법문으로 현상에 대한 이해와 발심을 촉발시킨다. 진취적인 수행관을 세우고 참심을 꼭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새롭게 태어나는 변화를 주는 기회(중도 공해탈 열반 깨달음 등의 관점을 접근한다)

### ▼ 5일동안 수행으로(특징)

- 1) 직관수행의 길로 바로 들어간다
- 2) 불교와 선 수행의 기초가 확립된다.
- 3) 모든 사람이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맹목적인 미혹한 삶에서 탈피한다.
- 4) 불교가 나아가고자 하는 깨달음과 해탈의 삶이 보인다.
- 5) 기복과 타락신앙의 굴레에서 벗어나 확신을 얻을 수 있다.
- 6) 그릇된 불교관을 바탕으로 한 잘못된 신앙생활에서 벗어난다.
- 7) 실생활에서 수행본분에서 벗어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기틀에 접근한다.
- 8) 맹목적으로 끌려가는 극기훈련식 수련이 아니다.

### 홈페이지

www.wmsonwon.net(wm선원닷컴)

### 대상 및 인원

· 20 ~ 60세 남·녀 일반인 70명

### 수련일정(4박5일)

· 1차: 2003년 7월 23일 ~ 27일 · 2차: 7월 31일 ~ 8월 4일 · 3차: 8월 13일 ~ 17일

### 접수처(선착순미리)

· 7월 5일 선착순 마감. 접수후 개별 통지함. 항공편 이용자는 속히 신청하여 항공편을 예약하여야 함. (항공편 이용자는 우선적으로 접수 통지합니다)

※ 항공사 예약전화: 대한항공 1588-2001, 아시아나항공 1588-8000

### 신청 및 서류

· 아래사항을 정확하게 기록하여 주세요.

1.성명(한글·한자) 2.주민등록번호 3.주소(주택·직장) 4.전화(주택·직장·휴대전화) 5.종교 6.직업-학교 (과)반 7.참가동기 8.수련회 참가경험 유·무(유경험자는 순서별, 언제 어디서 기간) 9.원하는 차수

### 문의 시간

· 평일(월~금)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화를 해주세요.

· 일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통화 가능합니다.

### 접수처

· 계주시 화북1동 4684번지 조계종 원명선원 ☎ 064-755-3322

· 팩스 064-755-0880(팩스 신청후 꼭 전화로 확인하세요)

열린도량 한라산 원명선원

당신은 지금 진정으로 행복하십니까? 무엇이 당신을 불행하게 합니까? 그 모든 고통의 무게를 내려놓으십시오! 하늘 땅 맑은 기운이 머무는 곳!

### 계통산 천왕봉의 정기가 머무는 도량!

## 도학사 산중 수련회

### 모시는 말씀

귀의 삼보하옵니다

지금 까지 모든 수행법을 통해서도 마음의 짐을 내려놓지 못하신 분들만 특별히 모십니다.

### 1.수행과정소개

개인 및 단체가 또는 가족 단위로 주말을 통해서 몸과 마음을 동시에 닦는 성명쌍수의 수행과정입니다.

각 신행단체, 직장단체, 각종 사회단체, 체육선수 내 외국인 단체 등 진정한 수행법을 알고 싶은 모든분들 모심.

※ 단체 (20인 이상 기준회비) 조정

### 2.참가회비

- ◆ 2박 3일: 10만원
- ◆ 3박 4일: 12만원
- ◆ 4박 5일: 15만원
- ◆ 1 개 월: 60만원

### 3.수행일과표

시 간	내 용	시 간	내 용
4시	기상, 예불	오후 2시	불교기초교리
5시	선제조 및 참선	오후 3시	무술수련
7시	아침공양	오후 5시30분	저녁예불
8시30분	운력	오후 6시	저녁공양
10시	무술수련(태극권)	오후 7시	(대체의학강의)
11시	위빠사나 수행	오후 9시	취 침
12시30분	점심공양		

### 4.개강일: 2003년 6월 17일 이후 년중무휴

### 5.참고사항

- (가) 매주토요일 주지스님의 면담시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 (나) 입과 후 개인외출 및 술 담배는 일체허락하지 않습니다.
- (다) 규칙을 어길 경우 일정제거나 퇴소조치됩니다.

### 6.접수처: 0411857-0830, 019-538-0830

### 7.준비물: 필기구, 세면도구, 운동화

### 8.신청기간: 단체는 3일전에 예약 개인은 수시접수

### 9.입금처: 국민은행 479-21-0198-177 (예금주: 권민주)

### 찾아오시는 길

충남 공주 터미널 하차 하시면 참선, 위빠사나, 실천무술(태극권공) 전문수행도량 차량운행

### ※ 공양주 모집: 00명

대우: 80만원 한달 2회 휴무

한의학, 대체의학, 마음공부하십시오 특이한형

### ※부전스님도 모집입니다.

※중무소에서 일하실 경리사무원(1명) 구합니다.

충남 공주시 이인면 발암리 86-1번지

도학사 도학선원 주지 光明道眼